

# 전국 초등임용 경쟁률 1.62대1

올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추진하는 2018학년도 초등교사 임용시험 경쟁률은 지난해(1.30대 1)보다 소폭 상승한 1.62대로 집계됐다.

최근 3년간 초등 임용시험에서 농산어촌이 몰려 있는 도지역 기피 현상으로 모집인원에 비해 응시인원이 미달했던 강원·경북·충남·충북·충안 등 5개 교육청은 경쟁률이 1대1을 약간 웃돌았다.

10일 교육부가 발표한 '2018학년도 시·도교육청 초등교원 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 결과에 따르면 올해 초등교원 임용시험 경쟁률은 4088명 모집에 총 6610명이 지원해 1.62대1을 기록했다. 이는 602명 모집에 총 7807명이 지원했던 지난해(1.30대1)보다 소폭 상승한 것이다.

시도별 초등교원 임용시험 경쟁

## 2018학년도 임용 경쟁률 전년비 소폭↑ 강원·경북 등 5개도 미달사태 벗어나 올해도 광주지역 경쟁률 최고...8.6대1

률을 보면 최근 3년간 미달을 기록했던 강원·경북·충남·충북·전남 등 5개도 교육청은 올해 경쟁률이 1대1을 웃돌면서 미달 사태에서 벗어났다.

경북(365명 모집에 398명 지원)과 충북(280명 모집에 305명 지원)은 모두 1.09대1을 기록했다. 충남은 500명 모집에 533명이 지원해 1.07대1을, 전남은 414명 모집에 433명이 지원해 1.05대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강원도는 319명 모집에 326명이 지원해 17개 시도 중 가장 낮

은 1.02대1을 기록, 가까스로 미달을 면했다.

5개도가 미달 사태에서 벗어난 것은 교육당국이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초등교원 선발 인원을 축소하면서 해당 지역교대 출신자의 지원이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5개도는 농산어촌이 집중된 도단위 기피 현상에, 지난해 신안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으로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주거 여건이 좋은 시단위로 지원이 몰리면서 미달사

태를 겪어왔다.

초등교사 임용시험 경쟁률이 높은 지역은 여전히 선호도가 높은 시단위였다. 전국 8개 시도 중 광주(8.6대1), 세종(3.4대1), 대전(3.0대1), 서울(2.78대1), 대구(2.58대1), 부산(2.3대1), 인천(2.04대1) 등 7개 지역이 1~7위를 휩쓸었다.

특히 17개 시도 중 초등교사 임용시험 경쟁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광주로 나타났다. 광주는 5명 모집에 43명이 지원해 8.7대1의 경쟁률을 찍었다. 이는 지난해(4.9대1)보다 2배 가까이 상승한 수치다. 최근 광주 지역 내 50대 이상 교사들이 대거 퇴직해 연간 퇴직자 규모가 줄어든 반면 30대 이하 교사는 늘어나면서 신규 교사 선발 규모가 점점 줄고 있는 탓이다.

뉴스시

## 美 오렌지카운티 큰 산불...주민들 긴급 대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니파와 소노마 등 8개 카운티에서 발생한 최악의 산불로 현재까지 10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한인이 많이 거주하는 남부 오렌지카운티에도 산불이 나 주민들이 대피했다.

9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 KTLA 방송에 따르면 '캐년 2호 산불'은 이날 오전 9시20분께 91번 프리웨이와 김섬 캐년 로드에서 발생한 뒤 오렌지카운티를 잇는 241번 도로 쪽으로 번졌다. 9일 오후 9시 현재 오렌지카운티의 애너하임 힐스 등 6000 에이커(734만 평)의 면적이 불에 탔고 건물24채가 전소됐다.

또 소방관 1명이 연기 흡입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오렌지카운티 당국은 5000가구 주민들을 대피시켰다. 오렌지카운티에서의 산불은 디즈니랜드에서도 목격이 됐으며 지역당국은 로스앤젤레스 일부 지역에 대기오염 주의보를 발령하기도 했다.

오렌지카운티 일부 주민은 산불 확산에 위협을 느껴 집을 탈출했다. 디오 폴포론고(22)는 LAT와의 인터뷰에서 "화재가 애너하임 힐스에 있는 자택 부근까지 몰려와 대피할 수 밖에 없었다"라며 "땀이 아파 학교에 가지 않은 여동생 2명과 대피했다. 인터넷을 통해 안전한 대피로를 확인했다"라고 말했다.

대런 와이엇 애너하임 경찰 대변인은 9일 브리핑에서 "산불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강한 바람으로 불길이 어느 방향으로 옮겨갈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다. 와이엇 대변인은 약 1000명의 소방관이 오렌지카운티 화재 진화 작업에 투입됐다고 전했다.

터스틴 경찰도 잼보리와 터스틴 랜치 로드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대피를 명령했다. 이 지역 일부 초등학교 학생들도 애너하임에 있는 캐년 고등학교로 대피했다. 이밖에 오렌지카운티와 인근에 있는 일부 공원도 화재로 인한 연기의 여파로 문을 닫았다.

한편 캘리포니아 산불로 인한 재산 피해는 이미 이 지역 사상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니파와 소노마, 유바 카운티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산불이 중요한 사회간접자본들을 파괴했으며 수천채의 주택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 김정남 얼굴서 치사랑 1.4배 VX 검출돼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의 안면에서 치사랑의 1.4배에 달하는 VX 독극물이 검출됐다고 말레이시아 정부 소속 화학자 리자 수브라니니가 10일 증언했다.

리자는 이날 지난 2월 쿠알라룸푸르 공원에서 살해당한 김정남의 여성 살해범 2명에 대한 재판에서 김정남의 시신과 눈, 혈장 등에서 순수한 VX가 검출됐다고 말했다.

VX는 여성 살해범 2명의 옷에서도 검출됐다. 말레이시아는 9일에는 정부 화학물질분석센터에서 재판을 열어 VX를 증거로 채택했다.

리자는 이날 증언에서 VX의 치사랑은 체중 1kg당 0.142mg인데 김정남의 안면에서는 1kg당 0.2mg의 VX가 검출됐으며 이는 치사랑의 약 1.4배에 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멕시코시티, 지진피해 빌딩 200 곳 철거시작

멕시코 시티 시 당국은 9일(현지시간)부터 지난 9월 19일 지진으로 손상된 150~200채의 빌딩을 철거하기 시작했다고 시 건설안전국의 레나토 베론 국장이 발표했다.

당시에 규모 7.1의 강진으로 369명이 목숨을 잃었고 최소 38개의 빌딩이 완전히 무너졌다. 무너진 건물은 대부분 고층 아파트 건물들이었으며 그 밖에 6개의 빌딩은 일부만이 무너졌다.

하지만 멕시코 시티 건설안전당국은 그 외에도 수백 채의 다른 빌딩들 역시 심각한 구조적 손상을 입은 상태여서 일부는 수리를 하거나 보강공사를 하겠지만 우선 이웃 거주자들과 운전자, 보행자들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는 건축물들을 파괴, 철거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미 11개 건물은 철거하기가 내려져 그 중 3개 건물의 공사가 시작되었으며 앞으로 몇 주동안 수십 채가 계속해서 철거될 예정이다. 많은 주민들은 소송전 등 철거 불용 사태를 우려하고 있지만 시 당국은 이미 시작된 11개 건물의 소유주들과는 합의를 끝냈다고 말하고 있다.

지진 피해로 콘크리트 기둥이 부러져 내리거나 심하게 균열이 가 있는 위험한 건물들 때문에 가뜩이나 교통난이 심한 멕시코시티 시내에는 교통난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

## 최근 5년간 13세 미만 성폭력범 40% 증가

2012년부터 최근 5년 간 발생한 13세 미만 성폭력 사범이 40% 가량 늘어난 반면 구속비율은 절반 가까이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태섭 의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법무부 제출 자료를 공개하며 "2012년 9월 국회에서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범죄자 처벌 강화(무기징역까지 상향), 친고죄 폐지, 공소시효 배제 범위 확대 등의 조치를 했지만 오히려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는 증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자료를 살펴보면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사범의 경우 2012년 868명에서 2013년 1024명, 2014년 1163명, 2015년 1174명, 지난해 1211명으로 2012년에 비해 39.5% 늘었다. 반면 구속 비율은 2012년 30.1%(261명), 2013년 29.3%(300명), 2014년 20.4%(237명), 2015년 19.4%(228명), 지난해 15.9%(193명)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법정 대상을 19세 미만 미성년자로 확대해도 성폭력 사범 수는 늘었다. 2012년 19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은 4261명이었으나, 2013년에는 4528명, 2014년 4628명, 2015년 4516명, 지난해 4615명으로 증가세(8.3%)를 보였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성폭력 사범 구속 비율은 2012년 2012년 16%(680명), 2013년 16.4%(744명), 2014년 14.5%(670명), 2015년 14.4%(650명), 지난해 12.4%(572명)로 감소세를 보였다.



휴식같은 공연 황금연휴가 끝나고 가을이 깊어지는 10일 서울 시청앞 서울광장내 특설무대에서 열린 '피날레 페스티벌'에서 시민들이 편한 모습으로 차어올밴드의 공연을 보고 있다.

## 불법학원·과외 4년간 4만3000건 적발...77.8%가 경정계

### 사교육근절 운동사비

사교육 열풍과 감독당국의 솜방망이 처벌로 불법학원, 불법개인과외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상도 의원(자유한국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 교습으로 적발된 위반행위는 2014년부터 2017년 6월까지 3만8496곳, 4만1317건으로 집계됐다. 한해 평균 1만2313건, 한달 평균 1026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셈이다.

이 가운데 중징계는 등록말소가 2864건, 교습정지 1731건, 과태료

3044건, 고발 2023건 등 총 9651건에 그쳤다.

반면 경정계(벌점부과·시정명령)는 3만3775건으로 전체 조치의 77.8%에 달했다.

불법 유형별로는 설립운영자 연수불참(32.1%), 감사제용(10.6%), 교습비 관련 위반(10.2%), 제장부 미비지 및 부실기재(6.1%), 개인과외 관련 위반(5.5%), 무단위치 변경(5.3%), 교습시간 위반(3.8%), 미신고 개인과외(3.2%) 등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만285건(23.9%)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으며 경기 552건(12.9%), 부산 502건

(11.6%), 경남 3181건(7.4%), 광주 3102건(7.2%), 전북 2657건(6.2%) 등 순이었다.

특히 인천, 세종, 경기, 강원 제주지역은 최근 3년간(2014~2016년) 해마다 불법학원, 불법과외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상도 의원은 "심각까지 이어지는 불법학원, 과외는 학생들의 건강에 위협이 되고 공교육정상화를 어렵게 하는 것은 물론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은 서민과 저소득층 가계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사교육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뉴스시



사람중심·생명존중 교통사고예방이 캠페인

# 당신의 작은 배려가 선진 교통공동체를 만듭니다!

- 운전자를 배려하는 '방향지시등 사용'
- 보행자를 배려하는 '정지선 지키기'
- 통행인을 배려하는 '무단횡단 안하기'

